

광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29>

<5부> '귀농' 꿈을 이룬 사람들

④ 방울토마토 재배 김재철씨

택시 병행하며 시작...저농약으로 10년새 8배 규모 성장



김재철 유선농장 대표가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가 당시 귀농한 김 대표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농산물 공판장에서 품질을 인정받는 방울토마토 농사꾼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귀농농부 김재철(50) 유선농장 대표는 광주시 광산구 월산동 아파트에서 5~10분 거리인 운남동 들녘으로 출·퇴근한다. 하루 일과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 폭염을 피해 기온이 선선한 아침과 오전 시간에 방울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저녁 무렵 수확한 방울 토마토를 선별해 광주 각화동 농산물 시장과 서부 농산물 시장으로 보낸다. 남미에서 유래한 자그마한 채소 또는 과일이 김 대표의 인생을 뒷받침하는 '황금사과'가 된 것이다. 토마토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pomodoro'는 '황금 사과'라는 의미이다.

이후 김 대표는 2003년께 고추에서 토마토와 방울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했다. 처음 250평 2동 비닐하우스로 시작했던 농사규모는 10여년이 지난 지금 임대(900평)까지 포함해 2000여평으로 몸집을 불렀다. 방울 토마토 연간 생산량은 50t(5kg 1만 상자) 규모로, 총매출이 1억5000~2억원에 달한다. 김 대표가 생산한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높다'고 입소문이 나며 공판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부인 이미라(43)씨는 "내 아이가 먹는다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약대신 자



올해의 경우 방울토마토 가격이 한·미 FTA 체결 이후 물러드는 수입 과일 영향으로 전년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산지폐기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김 대표는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연간 3000여만원이 들어가는 '난방비'와 '일손부족'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앞으로 무작정 농사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하다. 심지어 겨울작목 농사가 날로 힘들어져 작목전환을 꿈꿨다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김 대표는 더 좋은 방울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추농사 실패 이후 품종 바꿔 연간 매출 2억원 '난방비 가장 애로...귀농 성패, 작목 선택이 좌우'

◇IMF로 택시운전과 농사 시작= 김 대표의 귀농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직장생활을 하던 김 대표는 경기가 어려워지며 퇴사한 후 여수 수원이 아버지 땅이 일부 남아있던 운남동으로 들어와 고추 농사일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면 상태라 처음 4~5년간은 농사와 택시운전을 병행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한 고추농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외래 해충과 태풍에 따른 침수피해가 그였다. '작은뿌리파리'라는 외래 해충이 갑자기 몰려왔다. 수확을 앞둔 고추가 시들어 버려 농사를 망쳤다. 비닐하우스 인근에 펄프장이 생기기 전에는 수차례 침수피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생소한 농사일에 안착하기까지는 주위 농업인들을 비롯해 하남농협(조합장 박종면)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

가 액비를 만들어 뿌리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음은 물론이다. 슬하에 3녀를 뒀던 김 씨 부부는 5개월전 '늦둥이' 아들을 봤다. 또 이달 초에는 농협 중앙회에서 수여하는 '새농민상'을 수상하는 등 결실을 맺었다. 김 대표는 "밤낮을 바꾸어 택시운전을 할 때는 자녀 얼굴보기가 힘들었다"며 "귀농한 후 가족들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점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토마토 농사 난방비가 가장 애로=토마토 농사는 크게 여름 작기(作期)와 겨울 작기로 나눈다. 겨울 작기는 8월 하순과 9월 하순에 각각 정식(定植)해 11월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수확하고, 여름 작기는 5월 초 정식해 7~8월 수확하게 된다. 이렇게 작기를 조정함으로써 연중 끊이지 않고 방울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 전남 귀농교육

도 농기원 등 이론부터 현장 실습까지 '맞춤형'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 도내 대학 및 농업관련 기관들도 귀농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www.jares.go.kr)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귀농인 교육 주말반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종합과정·채소과정·생약초 과정 등 4개 과정으로 나눠 이론교육과 우수농장 현장학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30~31일 이틀간 '귀농인 농업기계반'(교육정원 25명)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응급점검, 정비 및 기초이론 ▲영농현장에서의 작업방법과 운전조작 실습교육 등 귀농인이 농촌

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현장 작업종심 1:1 실습교육 위주로 실시한다. 또 9월 11~13일에는 귀농·귀촌 성공전략과 과수 재배기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귀농인 과수교육(교육정원 30명)이 예정돼 있다. 앞서 3월부터 7월까지 채소·생약초·한우 등 귀농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추진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최초로 '녹색산림 버섯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버섯재배법 교육, 버섯균의 생애와 생육 원리를 알려주는 실험실습 및 현장교육을 함께 함으로써 버섯 재배를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에서도 매년 귀농인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광주카톨릭대 평생교육원(www.kccei.com)은 매년 '광주·전남 귀농학교'를 열고 있다. 올해는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시농부 교실'을 연다. 29일까지 수강생 30명을 모집한 후 김성민 광주 도시농업연구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주 1회씩 텃밭 가꾸기와 귀촌교육 등 텃밭관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이밖에 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센터와 전국 귀농운동본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 사이트에서도 귀농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Advertisement for moviehelix featuring Megabox and Columbus Cinema. It includes showtimes for movies like 'The Dark Knight Rises' and 'The King of Hearts' at various locations like Kwangju and Gwangju.